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1월 29일 (다섯째 주일)

성경본문 : 마가복음 2장 23-28절

설교제목 :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우리는 안식일의 기원과 중요성, 주일성수의 의미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안식일의 규례가 갖는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에 대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의 생명보다 선행할 수 없다고 반론하십니다. 안식일의 규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7절)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무엇을 지켰느냐 아니냐로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계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안식일의 성격과 관련해서 핵심단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와 **‘지키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 근본정신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식일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원리는 우선, 그침입니다.(창2:2)**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핵심적인 규례가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동하지 말라는 의미가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에서 노동의 그침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옛세 동안 일하고 안식일이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옛세 동안 일한 나에게 해방감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노동으로부터 멈추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서의 노동의 그침은 하나님의 창조주되심 즉 우리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 되기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지는 주인인양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못말깁니다. 안식일만큼은 나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명기서의 노동의 그침은 구원자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 편에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르바 던은 이것을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일함, 즉 나의 생산능력, 성취능력 등을 통해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소유적 삶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자체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르바 던은 **안식일은 소유를 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유적 삶이 아니라, 나의 소유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존재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안식일은 문화순응을 그치는 날입니다.** 세상이 가치있다고 하는 것들, 세상의 법칙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신약의 주일에 노동의 그침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선경험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주일에 안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못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일은 나의 생업을 그치고, 하나님되려는 욕망을 그치고, 소유적 삶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천국을 선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식의 원리는 쉼입니다.(창2:2)** 마르바 던은 그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쉼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쉼’, ‘육체적인 쉼’, ‘정서적인 쉼’, ‘지**

적인 쉼’, ‘사회적인 쉼’입니다. 사실, 쉼의 원리의 핵심은 재충전입니다. 어떻게 주일에 이러한 다양한 쉼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느냐?입니다. 주일의 예배와 봉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에는 예배와 교회공동체 혹은 연약한 이웃을 돌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자신의 육신과 정서와 생각에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의 원리는 향연입니다.** 행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식일의 원리는 축제입니다. 주일은 향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음식이 있는 향연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안식일 저녁식탁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만찬을 누립니다. 보통 유대인 가정은 안식일 오후를 가족과 함께, 혹은 경건한 유대인 이웃 가정을 불러서 만찬을 즐깁니다. 우리가 주일저녁에는 가족과 혹은 이웃과 풍성한 음식을 함께 누리고 식탁교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향연**입니다. 마르바 던은 음악이 있는 향연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은 찬양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찬양을 누리고 찬양대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칭송을 받는 향연**입니다.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주일은 하나님께 찬미하며, 함께 교제의 식사를 나누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사에 아내를 위한 기도와 자녀들을 위한 축복을 합니다. 가정에서 주일에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공동체도 주일에는 가급적 서로가 축복하는 날이 됩시다. 우리가 주일성수를 율법적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성경적인 안식일의 원리와 성격을 통해서 주일을 잘 지켜나갈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는 고백처럼, 온전한 주일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안식일의 원리 가운데 그침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안식일의 원리 가운데 쉼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안식일의 원리 가운데 향연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주일성수를 율법적으로 배웠습니다. 따라서 주일에 무엇을 하고 안하고가 핵심관점이었습니다. 주일성수의 핵심은 안식일의 원리와 정신을 잘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각자 앞으로 주일성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